

5》 누구나! 2015 경희인



6》 연재기획: 대학원, 장학금과 학업 사이



2015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 신청 안내

대상: 가. 재학생(졸업유예자 포함)으로 학점포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자
나. 휴학생, 수료자, 졸업자는 신청할 수 없음
신청기간: 2015. 3. 16(월) ~ 3. 20(금)
가능학점: 졸업 전까지 총 6학점 이내



지난 11일 서울캠퍼스(서울캠) 청운관 앞에서 '성적평가제도 대응 선포식'이 서울캠 총학생회(총학)와 서울캠 중앙운영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선포식에서 총학 강필준(자율전공학 2012) 부회장은 "지난해 '성적평가 협조요청' 논란에 이어 대학본부가 올해도 유사한 방법으로 성적평가제도를 바꾸려고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마을, 청춘에 아로새긴 낙서의 흔적들”

문화 - 당신이 지나친
‘가장 가까운 이야기’ -#1

이시은 기자 dltldms77@khu.ac.kr

#대학가는 다양한 기억들이 서린 ‘추억의 장소’다. 끊임없이 사람이 떠나고 또 들어오며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그 곳. 당신이 무심결에 지나치고 있는 그 곳에는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있다. 우리의 곁에서 시간과 함께 차츰 쌓여가고 있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대학주보가 살펴보려고 한다. 앞으로 이어질 <당신이 지나친 ‘가장 가까운 이야기’>들은 온라인 대학주보(<http://media.khu.ac.kr>)에서 만나볼 수 있다.



국제캠퍼스 정문 옆의 작은 골목. 술집들의 벽 곳곳마다 학생들의 흔적이 가득하다.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후미진 골목 안 쪽으로는 작은 쪽문 두 개 만이 학교와 이어져 있다. 이 곳에 처음 밭을 디딘 새

내기들은 “선배, 여기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요”라며 어떤 경계심 비슷한 감상을 꺼내놓는다.

하지만 그랬던 새내기들은 4년, 5년이 지나 캠퍼스를 떠날 때가 되면

심증팔구 이 곳을 정겨운 마음의

고향처럼 여기게 된다. 캠퍼스에 밭을 디딘 무수한 사람들의 진한 추억이 배인 곳, 오래된 외연에도 항상 새로운 열기로 가득 찬 곳, 이곳은 통칭 ‘마을’이라 불리는 곳이다.

“여기 터 잡은지도 벌써 36년째. 그동안 참 많이도 변했어.”

커다란 철판 앞에서 갖은 채소와 양념 속에 버무려진 떡볶이를 꼼꼼하게 휘젓고 있는 이차옹(75) 할머니는, 당신이 톡 내뱉는 말처럼 깊은 세월의 흔적이 여리 갈래로 퍼져 있는 손을 갖고 있었다.

이 할머니는 마을 안에서 가장 오래된 분식집인 ‘아빠짱 분식’을 허로 운영하고 있는 ‘마을의 터줏대감’이다.

▶8면으로 이어짐

여성은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진다! 《제2의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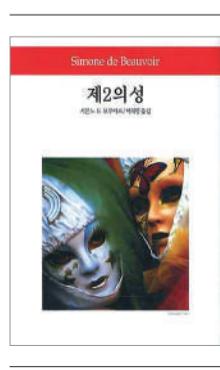
후마니타스칼리지 - 대학주보
공동기획, 고전의 사계 ④

이정순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시몬 드 보부아르(1908-1986)에게는 소설가, 철학자, 사르트르의 동반자, 저널리스트, 극작가, 회고록 작가, 참여지식인, 급진적 페ミニ스트 등 다양한 호칭이 따른다. 이처럼 많은 호칭은 생전에 보부아르가 전 생애에 걸쳐 지칠 줄 모르고 정열적으로 활동한 다양한 면모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20세기 페미

니즘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점에서 보부아르는 현대 여성해방의 선구자로 상징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되어지는 것이다

오늘날 페미니즘을 논하기 위해서는 시몬 드 보부아르라는 이름과 그의 대표작 저서 《제2의 성》에 나오는 유명한 명제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되어지는 것이다. On ne naît pas femme, on le devient.”를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 문구는 필경 보부아르의 작품과 참여활동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으로 남을 것이다.

《제2의 성》은 1949년 출간 당시, 프랑스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여성해방을 목표로 한 이 책은 당시 프랑스 가부장적 사회에 폭탄을 던진 것과도 같았다. 여성

을 남성 주체의 ‘타자’로서 종속적인 상황에 놓여 있도록 한 ‘여성성 feminine’의 신화와 모성, 사랑, 성차 등에 대한 신화의 허구성을 드러내면서 양성 간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주장한 것이다. 그 때문에 보부아르는 마르크스주의자에서부터 가톨릭교회에 이르기까지 좌우를 막론하고 보수적인 남성 지식인들의 거센 반발과 비난을 받았다. 모리아크, 카뮈 등 일부 남성 지식인들은 보부아르에 대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7면으로 이어짐

알림

대학주보 온라인 ‘이슈스트림’ 서비스
(media.khu.ac.kr/khunews/issue_stream)

이슈 stream

매일 같이 쏟아지는 정보의 시대 속에서, 중요한 이슈에 대한 흐름과 맥을 읽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학주보는 각 키워드별 관련 기사를 시기순과 호응도순으로 정리해, 독자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슈를 읽어낼 수 있도록 ‘이슈스트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기고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송주빈 (전자전파공학 교수) ▶7면



시선

사설

대학주보, 관보(官報)아니다

- 학사지원과의 취재 저지 유감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시의 기능이며, 언론은 항상 중립적 위치에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며 공동체 환경을 살펴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언론이 정치의 영향을 받게 되면 언론은 '편집된 정보를 제공하는 단순 기능적 매체'로 전락하게 된다.

이를 고려한다면, 지난 6일에 진행됐던 '성적제도 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개편특위)' 제2차 회의에서 학사 지원과가 보여준 태도는 건전한 공동체적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당시 학사지원과는 취재 목적으로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대학주보 기자에게 '사진촬영까지는 괜찮지만 교수나 윗분들 중에 (대학주보의 취재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회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정리해서 드리겠다는데 왜 굳이 참관하려고 하는가' 등의 발언을 하며 회의장 진입을 저지했다. 이는 지난 2월 달에 있었던 제1차 회의 당시 '사전에 취재협조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학주보 기자의 회의장 진입을 제지한 데에 이어 두 번째로 벌어진 사건이다. 심지어 '드리겠다'고 공언한 회의록은 회의 종료 일주일이 흐른 지난 주말까지도 '아직 작성이 덜 됐다'는 이유로 제공되지 않았다.

문제가 된 '개편특위'는 지난 해 소위 '평균 BO' 논란을 일으켰던 '성적평가제도 개선안' 문제에 맞닿아 있다. 당시 학교 측은 공동체 구성원이자 안건의 주요 당사자인 학생을 배제시킨 채 학장회의를 통해 성적평가제도 개선안을 추진했다가 학생 구성원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에 올해 들어 해당 논의를 총학생회와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이 개편특위의 본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생대표인 총학을 논의에 동참시키는 것만으로 구성원에 대한 모든 책무가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학언론은 등록금책정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 등 공동체의 운영과 관련된 거의 모든 회의에 동석하여 취재활동을 펼친다. 그는 이유는 첫째로 구성원의 삶과 밀접한 결정이 이뤄지는 해당 논의를 구성원에게 중간보고하고, 둘째로 해당 이슈를 공론화시키고, 셋째로 해당 논의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만일 대학언론이 이런 회의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언론은 '구성원이 자주적으로 공동체 운영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는 모든 회의 현장에 참석할 여력이 없는 일반 구성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안타깝게도 학교 측은, 아니 적어도 학사지원과 측은, 대학언론을 '깔끔하게 정리된 사항만을 내보내는 관보(官報)' 또는 '모든 취재에 협조공문을 발송해야 하는 본관 산하의 행정부서' 정도의 개념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렇지 않고 학교 측이 '언론의 본분'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대학언론의 직무' 개념에 대해 적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신문의 입장에서는 이번 개편특위에 대한 취재 저지는 개편특위에 '논의과정의 투명성이 담보되면 곤란한' 학교 측의 모종의 입장이 것들어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대학주보는 모든 종류의 정치적 압력을 거부하며, 항상 사실을 넘어서는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경학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다 하려 분투해갈 것이라는 점이다.

의약학 계열 국가고시

100% 합격

미디어 여론동향 2015. 3. 2~3. 15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가정폭력'(경희숲_7367, 2015.3.2)에 관한 내용의 글이 인기가 높았다. 글쓴이는 7살 때부터 시작된 아버지의 폭력이 너무 무섭다며 글을 시작했다. "과도를 들고 행패를 부리거나 매사에 시비조로 대답을 하는 부분이 너무 힘들다"며 "경제적으로 빨리 자립해 행복하고 자상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100% 글쓴이의 마음을 이해할 순 없지만, 그저 힘을 내라는 뻔한 말밖에 할 수 없어서 죄송하다"는 댓 글이 올라왔다.

우리학교가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국가고



이 주의 주제 - 경제적 부담에 허덕이는 대학원생

대학원생의 목적 전도된 '조교장학'

최승욱 기자
(dotori14@khu.ac.kr)

최저임금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최근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임금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미국과 일본 등도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권 역시 7% 인상이나 1만 원이니 숫자 구호부터, '생활임금제'라는 단어까지 쏟아내고 있다. 이 논의에서 임금인상에 따라 소비가 늘고, 시장이 살아나는 선순환으로 가느냐 도리어 고용이 줄고 경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으로 가느냐를 두고 밀고 당기기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논의는 경제계나 노동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 '노동'이라는 요소를 감안할 때, 대학원생의 조교 근로 역시 이런 최저임금제 논의에서 고민해 볼 부분이다. 특히 반값등록금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다수'인 학부생에 대한 국가 지원은 예전보다 늘었지만, 대학원생은 한 발 비껴서 있었다. 심지어 학부등록금 동결을 대학원 등록금 인상으로 메꾼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중앙대, 한양대, 성균관대 대학원등록금의 경우 지난해 대비 2% 인상된 바 있다.

당장 외부 프로젝트나, 연구비지원금이 큰 이·공계열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 연구과정에서 자연스레 연구비를 지원받고, 등록금 부담도 덜 수 있

기 때문이다. 반면 이런 기회가 없는 대학원생은 결국 '조교장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조교는 '보조' 역할을 넘어 '주 행정업무'를 미루는 대상이기도 하고, 잔심부름부터 사적 심부름까지 적지 않은 문제를 겪는 자리다. 베티며 일주일에 32시간 1학기를 근무하면 등록금의 전액도 아닌 500만 원의 '임금'을 장학금으로 받는다. 시급으로 계산 6,010원이다. 올해 최저시급 5,880원보다 230원 더 받는다. 조교업무보다 중요한 것이 연구 활동이고, 학업인 상황에서 고된 노동의 대가는 박히기만 한 것이다.

취재과정에서 만나는 대학원생들도 사정은 다르지만, 조교근로에 대한 의견은 대개 비슷하다. 업무강도를 낮춰주거나, 아니면 시급을 올려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바램과는 반대로 현재 우리학교는 시급을 낮추는 방향을 선택한 셈이다. 이에 발맞춰 업무강도가 줄어야 선순환이다. 그러나 대학원은 업무강도를 줄여달라는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이고, 실제 업무량은 일선부서에서 결정한다. 시급은 낮췄지만, 업무강도는 그대로일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업무 강도에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조교업무'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행정부서에 요구해야 한다.

보다 큰 틀에서 대학원생에 대한 국가적 지원 검토도 절실히 한다. 학부생만큼이나 대학원생 역시 학자금대출 등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들은 연구 등으로 인한 이중고도 겪고 있다. 장기적으로 국가의 연구역량이 약해지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시에서 100% 합격률을 기록했다.(치과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 국가고시 100% 합격/대학 홈페이지 Focus, 2015.3.9) 제67회 치과의사 국가고시에 2014학년도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71명이 응시해 전원 합격했고, 한의과대학 졸업생 121명(기 졸업자 8명 포함)도 제70회 한의사 국가고시에 전원 합격했다. 약학대학 학제가 4년제에서 6년제로 개편된 후 처음 시행된 제66회 약사 국가고시에는 약학대학 졸업생 50명, 제55회 간호사 국가고시에는 간호과학대학 졸업생 91명이 시험을 치러 전원 합격했다. 제79회 의사 국가고시에는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114명이 응시해 109명이 합격, 전국 평균 합격률 94.6%보다 높은 95.6%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우리학교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과학대학 등 의약학 관련 전 분야에서 단과대학을 두고 있는 국내 유일의 대학이다. 우리학교는 지난 9일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임영진 의과대학 교수를 임명했다.(경희대 신임 의무부총장에 임영진 경희의료원장 임명/세계일보, 2015.3.11) 우리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임 신임 의무부총장은 경희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감마나이프 수술 분야의 대가로 꼽힌다. 또한 그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제22대 경희대병원장에 취임, 2012년에는 제15대 경희의료원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국가고객만족도조사(NCSI) 결과 상승, 상급종합병원 지정, 해외환자 대거 유치 등 경희의료원의 변화와 혁신을 남다른 리더십으로 이끌며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태 교수가 최근 국가지정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의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한빛사)'에 선정됐다.(강동경희대병원 김태 교수,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에 선정/쿠�키뉴스, 2015.3.12) 김 교수는 하버드의대 정신과 로버트 맥컬리 교수 연구팀과 함께 기저전뇌(basal forebrain) 영역의 특정 신경세포가 대뇌피질(cerebral cortex)과 직접 연결돼 인지기능 조절에 기여한다는 것을 밝혔다. 원거리에서 대뇌피질의 인지기능을 조절하는 특정 유형의 신경세포를 발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교수의 연구논문은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인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3월 2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경희와 호흡한

'깊은' 삶을 들려달라

세시봉

백승철 (편집장)



'지대넓얕', 웬 줄임말인가 했다.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말로 팟캐스트 방송 중 하나였는데, 최근에는 동명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화재가 됐다. 방송을 들어보지도, 책을 읽어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지대넓얕, 입에 감기는 이 말을 곱씹어봤다.

기자활동도 지대넓얕에 부합하는 일이다. 아래저래 사람을 만나다보면, 혹은 통계자료를 들려보다보면 사실 몰라도 됐을 자질구레한 것들까지 알게 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행정구역을 그려놓은 지도를 보면 헐떡고개만 넘어도 이문동이라든지 하는 것들 말이다.

우리신문이 이번주 국제캠퍼스 '마을'을 시작으로 살피려고 하는 <당신이 지나친 '가장 가까운 이야기'>도 그런 '넓고 얕음'에서 시작됐다. 밥 먹으려고 정문 밖을 나서면, "저 위치에는 원래 무슨 가게가 있었다"는 말들을 여러번 들었다. 그렇게 수다를 떨면서 서울캠퍼스 정문 앞에서 사라진 가게를 이야기하는 선배들과 구두를 닦아주며 덕담을 건네준 그분 덕에 마음이 따뜻했다는 직원들, 오랫동안 노점생활을 하다가 얼마 전 가게를 냈다는 아저씨까지.

오랫동안 경희라는 공동체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가벼운 마음으로 듣기 시작했지만 어느새 흡뻑 빠져들게 했다. 오래전 할머니가 들려주던 전래동화처럼, 우여곡절 속에서 이들의 삶과 잠깐 호흡하는 시간은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잠깐의 호흡으로, 또 개인의 넓고 얕은 이야기거리로 삼기에는 세상은 빠르게 바뀌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다.

개인의 생각은 아니었던 듯하다. 동네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다가 20년도 넘게 장사를 했다는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었는 등, 친구를 40년 뒤파는 아저씨가 있다는 등 기자들은 하나같이 좁고 깊은 '삶'을 청취하고 다녔다. 편집회의 끝에 기자들은 기록이라는,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에 전념해보기로 했다.

첫 번째로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아마 지면을 모두 할애해도 부족할 이야기들을 국제캠퍼스 출신이라면 하나씩 품었을 그 곳, 버스가 정문 앞에 멈추고, 지하철이 들어서면서 마을에서의 영업도 이제 예전 같지 않다고 한다. "아직까진 괜찮지만, 점점 줄어 가긴 해". 취재하면서 가장 자주 들은 '넋두리'라고 한다. 사업이 잘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이라기에는, 그 곳들은 청춘의 빛나고 또 어두운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자들은 일주일 동안 몇차례 같은 곳을 찾아 서터를 놀렸다.

앞으로도 이 이야기들을 담아나가는데, 이제 갓 후배들을 받은 기자들로는 힘에 부친다. 추억한다는 것, 먼저 경험해봤다는 것이 세월이 갖는 가장 큰 힘이기에 앞으로 기자들은 많은 학교와 관련된 옛 이야기 제보를 기다리고자 한다. 뜻 깊은 시작에 많은 구성원이 도와주리라 믿는다.

마침 올 해는 대학주보 60주년이다. 앞으로의 60년을 또 기록해나갈 진리를 위한 넓고 깊은 추억을 고대한다. 오늘은 늘 어제가 되니까.

알림

대학주보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뉴스와 정보는 물론, 취재과정 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www.facebook.com/khunews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진 | 편집장 백승철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주)
구독료 1년·편월 | 구독 02-961-0093-4 | 주소 경기 02-441-7317(인터넷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턱용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보도

올해 입학생부터 재수강 과목 성적표에 남는다

임신·출산·육아·창업휴학… 휴학제도 종류 늘어나

학사운영 개정

황경선 기자 sunny96@khu.ac.kr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졸업 후에도 성적 증명서에 재수강과 학점포기 기록이 남게 된다. 기존 재수강 제도 관련 조항에는 '기 취득한 성적은 졸업 예정학기부터 성적증명서에서 삭제한다'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삭제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성적증명서에 기 취득한 성적이 'R'로 표시돼 따로 기록된다.

학점포기 제도 역시 기존에는 졸업 예정 학기인 8학기 차 이전까지는 성적증명서에 해당 학점을 'W'로 표기했다가 8학기 차부터 삭제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졸업 후에도 영구적으로 학점포기 기록이 남게 됐다. 단, 상기 개정사항들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2014학년도 입학생까지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서울캠퍼스 학사지원과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성적이증표기금자를 권고했다"며 "성적이증표기금자를 통해 학점포기와 성적증명서의 성적 기록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재수강제도 및 학점포기제도의 개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입학생부터 성적증명서에 기취득 성적이 'R'로 표시된다

한편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 휴학제도의 보완도 이뤄졌다. 기존에는 정식 휴학 사유로 인정되지 않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과 '창업 휴학'이 신설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 휴학'과 '군입대 휴학', '특별 휴학', '유급 휴학'의 네 종류로 운영되던 휴학 제도는 총 여섯 종류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임신·출산 또는 만 7세 이하(및 취학전) 자녀의 육아를 위한 휴학과, 창업 준비 및 창업을 사유로 하는 휴학이 가능해졌다. 다만, 임신·출산·육아 휴학의 경우 1회 2개 학기 이내,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창업 휴학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개 학기 최대 1회만 가능하다. 또 창업 휴학의 경우 4학기 이상

을 이수하고 창업을 준비 중인 경우 가능하며 사전에 창업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소속대학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휴학제도는 추가됐지만 특별휴학의 경우 규정은 엄격해졌다. 현행 규정에서는 '일반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수학을 계속할 수 없다고 소속 대학장이 인정한 경우'라면 특별휴학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반휴학 연한 만료자는 '졸업을 위한 필수과목이 졸업학기에 개설되지 않은 경우' 또는 '학생 본인의 질병 치료를 사유로 하는 경우'에 해당해야만 휴학할 수 있게 됐다.

휴학제도는 추가됐지만

특별휴학 규정은 엄격해졌다

기준 규정	개정 규정
제 3조 등록절차	학점취득이 가능한 모든 학점을 수강학점으로 산입한다. (학점이 소수점인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제 13조 휴학의 종류	일반휴학, 군입대 휴학, 특별휴학 가능 일반휴학, 군입대 휴학, 특별휴학, 임신·출산·육아 휴학, 창업휴학, 유급휴학 가능
제 36조 재수강	재수강을 한 경우에는 기 취득한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R로 표시하고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하며 졸업 예정학기부터 성적증명서에서 삭제한다. 재수강을 한 경우에는 기 취득한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R로 표시하고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졸업 예정학기부터 성적증명서에서 삭제한다.' 삭제)
제 39조 학점취득방법	계절학기 과목수강 계절제 수업 과목수강
제 50조 학점포기	학점포기한 과목은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W'로 표기하되, 졸업 예정학기부터 해당과목을 삭제한다. 학점포기한 과목은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W'로 표기한다. ('졸업 예정학기부터 해당과목을 삭제한다.' 삭제)

따라서 소속 대학장으로부터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위 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특별휴학이 불가능하다. 또한 각 사유별로 1학기를 초과해 휴학할 수 없다.

서울캠퍼스 학사지원과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유"라는 표현의 모호성으로 휴학을 남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다른 사람의 사유가 아닌 본인의 사유일 경우에만 휴학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기존의 규정 하에서는 '지인의 질병'을 이유로 휴학할 수 있었다면, 이번 개정으로 인해 규정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의미다.

이밖에도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의 등록금 납부 기준의 모호한 부분이 보완됐다. 기존의 납부 기준은 '4학점 미만 신청 시 당해학기 등록금의 1/6 납부', '4학점 이상~6학점 미하 신청 시 당해학기 등록금의 1/2 납부'였지만, 이 중 수강 학점이 6학점과 7학점 사이인 경우에는 납입기준이 애매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점이 소수점인 경우 소수점 이하를 절사해 자연수로 떨어지도록 규정이 개정된 것이다. 가령 6.5학점을 이수코자 하는 경우, 6학점으로 계산해 등록금 납부 기준을 따르면 된다.

기준	
수강학점	수업료
4학점 미만	당해학기 등록금의 1/6
4학점 이상~6학점 미하	당해학기 등록금의 1/3
7학점 이상~9학점 미하	당해학기 등록금의 1/2
10학점 이상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수정안	
수강학점	수업료
3학점 미만	당해학기 등록금의 1/6
4학점 이상~6학점 미하	당해학기 등록금의 1/3
7학점 이상~9학점 미하	당해학기 등록금의 1/2
10학점 이상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학사지원과 관련 권고문 발송예정 “세칙 심의하지만 판단은 단과대학 몫”

전공기초 인정여부 논란

이시은 기자 dtldms77@khu.ac.kr
조재신 기자 delphio@khu.ac.kr

우리신문이 보도했던 '캠퍼스간 자연계열 전공기초 인정여부' 논란(대학주보 제1585호 5면(2015.03.02.))에 대해 학사지원과가 '권고문 발송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권고문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단과대학별 전공기초과목 인정여부 원칙을 학사지원과로 제공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단과대학이 서로 상이하게 시행하고 있는 전공기초 선택과목 인정여부 원칙을 모두 제공받아, 각 해당학과들의 결정이 옳은지 여부를 종합적 관점에서 심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이과대학 행정실측은 내부적으로 진행된 '캠퍼스간 자연계열 전공기초 인정여부'에 대한 논의사

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해 학사지원과에 넘긴 바 있다. 회의록을 넘겨받은 후, 학사지원과는 이에 대해 관련 회의를 지속적으로 열었다. 학사지원처의 한 관계자는 "학사지원과 내부에서도 공통 과목에 대해서는 단과대학들이 서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적용대상에 대해서도 일부 학생(다전공생, 전과생)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학사지원과는 보다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학사지원과 측은 "실질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결정권은 해당 전공 교수님의 고유 영역"이라며, "우리는 단지 이번 권고문을 통해 해당 학과의 '판단기준'을 취합하여 이 기준이 전체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만을 심의하게 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2015학년도 1학기 사회봉사 이수

2015학년도 1학기 자유이수 과목 '사회봉사1,2,3,강좌의 수강신청 및 학점이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설내용 2004학년도 이후 입학생
이수구분 자유이수자
과 목 명 사회봉사1, 사회봉사2, 사회봉사3 (단계별 이수)
학점체계 (학기당 1학점, 재학 중 3학점까지 이수 가능)

이수절차 수강신청 ⇒ 인증받은 봉사활동 기관 중 선정 ⇒ 사회봉사활동

동 ⇒ 봉사활동 확인서, 학점이수신청서, 결과보고서, 활동증진 및 실증지 작성 ⇒ 정원인 기간 내 제출

제출서류 학점이수신청서, 사회봉사활동증인서, 사회봉사활동증인증서, 사회봉사활동증인증서

제출기간 2015.5.26.(화) ~ 5.6.(금)

제 출 처 생활과학대학 612호 지구사회봉사단(GSC)
봉사활동은 1회 최대 8시간 인정

현행은 1장당 4시간 인정, 학기당 2장까지 제출 가능

한 학기당 최대 3학점까지 이수 가능(학기당 이수 시 32시간 봉사활동 이수)

입학 이후 활동(종합 청 활동 포함) 한 모드 봉사활동으로 학점 취득 가능

1365 지원봉사포털(www.1365.go.kr), 서울동학프로젝트(www.donghaeng.seoul.ac.kr),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증명서(www.vms.or.kr) 사이트를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인정

교내 부서 및 단과대학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단, 담당부서(지구사회봉사단)와 사전협의된 봉사활동만 인정(사회봉사 카페 참고)

※사회봉사온라인네이션-2015.03.11. (수) 12:00 ~ 13:30, 크리스마스

※ 사회봉사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제출 서류는 반려되지 않습니다.

※ 사회봉사 관련 제출 양식(활동확인서, 학점 이수신청서, 결과보고서, 설문지)과 그 외 참고사항들은 사회봉사 카페(http://club.khu.ac.kr/khusge)에 있습니다.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인정인증 - 봉사활동 기관인증기관 확인을 회망하는 학생은 생활과학대학 612호 지구사회봉사단 사무실을 방문할 시, 기관의 기관인증을 확인해 주세요.

※ 사회봉사 서류 제출 기간 내에 서류 미제출시 지구사회봉사단은 학점에 관련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2014-학기 이후부터 F를 받았을 시 성적에 자동 삭제가 되지 않으며 재수강을 해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지구사회봉사단(생활과학대학 612호)으로 방문 또는 전화 02)961-0673, 2213~4

3월 셋째 주(3.16~3.20) 취업진로 프로그램

1. 캠퍼스 리크루팅(기업체 채용설명회 및 면접)

행사 명	모집부문	일 시	장 소
현대건설 채용연계형 인턴 채용면담	사업지원(현장사업관리, 구매/외주, 주택영업, 글로벌마케팅, 기획, 경영지원) 기획, 전기 등	3.16(월) 11:00~15:00	청운관 1층 상담실
현대건설 채용연계형 인턴 채용설명회		3.16(월) 16:00~18:00	청운관 B117호
BGF리테일 채용면담	영업관리, 전략기획, 재경지원, 상품운영, 전문직군	3.17(화) 10:00~16:00	청운관 1층 상담실
BGF리테일 채용설명회		3.17(화) 16:00~16:00	오피스홀 11호

*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방법: 경희대학교 재(휴)학생 및 출입생, 자원봉사자, 학생회원 등
- 기타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취업행사 카페를 참고해 주십시오.
- 채용설명회 관련 출석현장 발급: 각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설명회장 입구)에서 발급, 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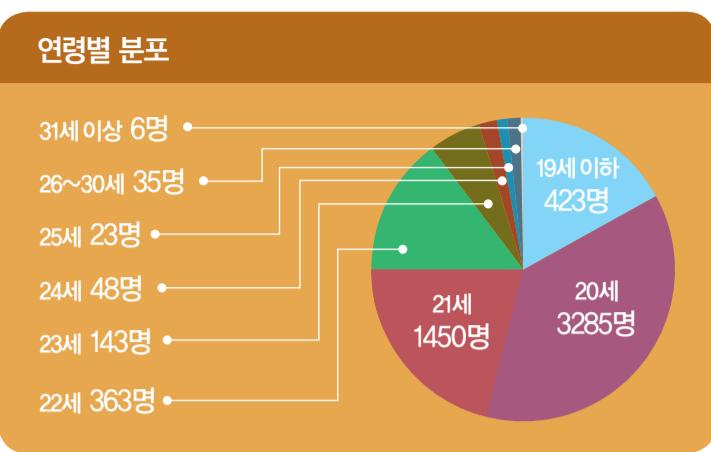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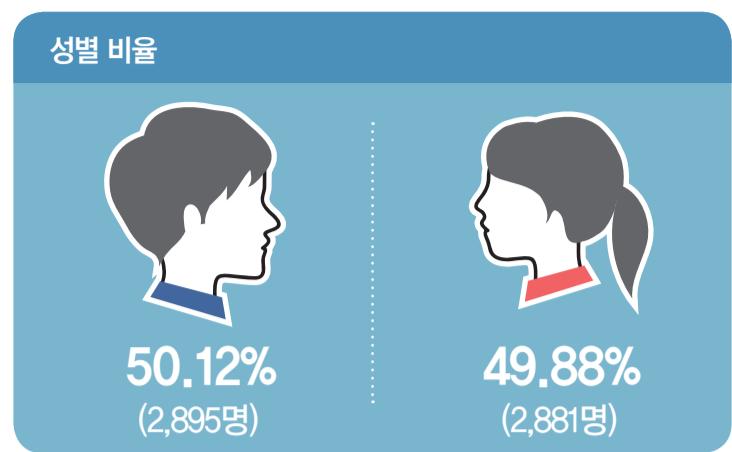
2. 1:1 취업진로지도 및 맞춤 컨설팅(취업상담)

- 대상: 경희대학교 학부 재학생, 출입생
- 상담 내용: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지도, 면접스킬 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를 진학 등
- 상세 내용

상담유형	컨설턴트	일 시	장 소	신청방법
개인 상담	분야별 컨설턴트 4명	월 ~ 금 오비스홀 354호~356호 제법과대학 107~2호 취업진로 자원처	청운관 1층 상담실	온라인포털 - '수업/상식/상담' 메뉴에서 신청
집단 상담	이중구 교수 (취직처 연구 실)장금교수, 대기업 상담	월 18:30~19:30 (매월 1~2회)	네오관 103호	온라인포털 - '수업/상식/상담' 메뉴에서 신청
On Line Off Line상담	한상백 팀장 (취업지원팀)	On Line (hansb@khu.ac.kr) Off Line (취업진로지원처)	On Line (취업진로지원처)	온라인포털 - '수업/상식/상담' 메뉴에서 신청

- 상담 신청자 취업준비 검사 참여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 상담 전, 후
- 각 회사(총 2회) 참여

- 주의사항
 - 상담 당일 날 취소 불



“누구세요?” 한눈에 보는 신입생

올해 우리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은 총 5,776명이다. 양 캠퍼스 학사지원과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성별 비율은 남학생 50.1%, 여학생 49.9%로 남학생이 약간 많았다. 단과대학별 성비를 살펴보면, 남초·여초 학과에 대한 기준의 통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세가 3,28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1세가 1,450명으로 뒤를 이었다. 30세를 넘은 신입생은 총 10명이었으며, 가장 나이가 많은 신입생은 45세였다. 출신 지역은 경기도가 1,625명, 서울특별시가 1,565명 순으로, 265명으로 3위에 오른 인천광역시와 차이가 매우 커다. 입학전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수시로 입학한 학생이 58.5%로 정시로 입학한 학생보다 많았다.

중핵교과 교재지원금 캠퍼스 간 차이 존재 정가 비싸다는 지적도

〈인간의 가치탐색〉 교재가격 논란

조재신 기자 delphio@knu.ac.kr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교재 〈인간의 가치탐색〉에 대한 지원금이 서울캠퍼스(서울캠)와 국제캠퍼스(국제캠)가 동일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반값 할인쿠폰'을 배부해, 정가 28,000원 〈인간의 가치탐색〉을 14,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반면에 국제캠은 총 학생회에서 배부한 '만 원 할인쿠폰'과 출판문화원 할인(10%)을 적용해 15,200원에 사야 한다. 학생 1명당 약 1,200원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캠 신입생은 누구나 쿠폰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국제캠 신입생은 선착순 2,000명에게만 지급됐다.

결국 차이는 출판문화원에서 지원하는 교재비 10% 할인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받지만, 각 캠퍼스에서 배정한 '지원금'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등록금 책정위원회'에서 처음으로 후마니타스 교재비 지원을 도입하는데 합의할 때, '캠퍼스' 별로 운용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 바 있다.

이런 차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학교의 책임으로 미뤘다. 국제캠 총학생회 김용석(화학공학 2009) 회장은 "총학생회는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에 맞춰 쿠폰을 배포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며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캠 대학본부 측은 지난해와 쿠폰지원금을 비슷하게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서울캠과 국제캠 간 예산책정에서 구조적인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2학기부터는 동일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등록금 책정위원회'에서 후마니타스 교재비 지원 도입시 합의 내용에, '캠퍼스' 별로 운용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부분이 포함된 바 있다

한편, 교재비 지원을 받더라도 정가 자체가 '비싸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특히 개정도 찾아 헌책을 물려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중핵교과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시민교육, 글쓰기 교과 등의 교재에는 지원금도 따로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출판문화원 측은 "도서정가는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재편찬위원회에 지원하는 발간비와 인쇄비 등 제반비용을 계산한 뒤, 손익분기점에 맞추어 보수적으로 책정한다"며 일부 학생들이 제기하는 '교재장사'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서 출판문화원 측은 "중핵교과 교재는 페이지 수가 많아 얇지만 내구성이 좋은 종이를 사용하고, 가독성 향상을 위해 4도(컬러)인쇄를 한다"며 "원가가 일반 서적에 비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유사한 부피의 흑백 인쇄된 책에 비해서도 오히려 저렴한 편이다"라고 말했다.

제작비 자체는 최대한 낮추고 있다는 것이 학교 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교재내용의 상당부분이 이미 국내·외 다른 출판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어 '저작권 사용료'의 부담이 커 학생들이 정가가 '높다'고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5회 봄맞이 음악회

“도서관과 함께하는 신입생을 위한 KUCO 정기음악회”

개강을 맞이하여 중앙도서관에서는 신입생의 입학을 축하하며 이용자들의 감성 회복과 휴식을 위해 봄맞이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다채로운 문화의 향기를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 공연명 : 도서관과 함께하는 신입생을 위한 KUCO 정기음악회
- 일 시 : 2015. 3. 20(금) 17:00 ~ 19:00
- 장 소 : 중앙도서관 3층 피스홀
- 연주자 : KUCO
- 프로그램

1부 Franz Suppe – Light Cavalry Overture(경기병 서곡)
The Sound Of Music
Music from Frozen

2부 Antonin Dvorak – Symphony No.9 '신세계로부터'

● 문의 :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사서과 031-201-3205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2015학년도 KHU-UN/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 설명회

미래문명원에서는 평화와 공정의 대안문명을 모색하고

21세기 글로벌시민社会의 리더를 육성하기 위하여

'2015 KHU-UN/국제기구 Internship 프로그램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UN 및 국제기구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경희인의 꿈과 희망을 펼치고자 하는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Internship 개요

- 명 칭: 2015학년도 KHU-UN/국제기구 Internship 프로그램
- 파견기간: 2015년 7월~2016년 6월(기간 중 3~6개월간 파견)
- 장학혜택: 왕복항공료 및 소정의 생활비 지급 예정
- 주 관: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 일시 및 장소

- 국제캠퍼스: 2015. 3. 19(목) 13:30, 국제학관 B101
- 서울캠퍼스: 2015. 3. 20(금) 15:00, 청운관 B117

● 문의사항

- 유 선: 02-961-0995~6
- 이 메일: gaf@knu.ac.kr
- 홈페이지: <http://uninternship.knu.ac.kr>

미래문명원

2015 상반기
리크루팅 안내

※ 회사별 모집요강은 국제캠퍼스 취업전진로지원처 홈페이지(career.knu.ac.kr) 공지사항 참조
※ 일정이 변경되거나 회사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 주제별 모집요강은 국제캠퍼스 취업전진로지원처 홈페이지(career.knu.ac.kr) 확인하세요.
문의: 취업지원팀 오은영(031-201-3064)

/채용상담/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8	9	10	11	12	13	14
	현대제철		마이나비		제일모직 건설사업부	
15	16	17	18	19	20	21
	현대건설			콘티넨탈 오피모티브 - 금호타이어		
22	23	24	25	26	27	28
	금호건설					
29	30					

/채용설명회/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현대중공업					
8	9	10	11	12	13	14
	현대자동차 - 현대제철		마이나비			
15	16	17	18	19	20	21
	현대건설	현대자동차그룹		콘티넨탈 오피모티브 - 금호타이어	LG화학	
22	23	24	25	26	27	28
29	30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기획연재

등록금에 허리휘는 대학원생, 장학수혜는 10개 중 1개

<한국장학재단 기준>

위기의 대학원
도약의 계기로 삼자

#. 대학주보는 이번 학기에 '위기의 대학원, 도약의 계기로 삼자' 연재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우리학교 대학원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총6회에 걸쳐 살펴보기로 했다. 우리학교 대학원이 안고 있는 다양하고 다단한 문제들에 대해 차근차근 고민해보는 동시에, 옆 나라 일본의 대학원은 어떤 모습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지 살펴보며 우리의 현실과 비교점을 해보도록 하겠다.

연재순서

- ① 총론-대학원의 위기
- ② 장학제도
- ③ 생활복지 및 연구지원 시스템
- ④ 커리큘럼
- ⑤ 학생선발 시스템
- ⑥ 대학원 조직문화

연재기획②: 장학제도

최승우 기자 dotoril4@khu.ac.kr

대학알리미 정보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학교 일반대학원의 평균 등록금액은 학기당 578만 원이다. 우리학교 학부 등록금액의 평균 382만원에 비해 약 1.5배 높다. 대학원 등록금이 비싼 것은 우리학교만의 일은 아니다. 비슷한 규모의 연세대(1.45배)·고려대(1.46배)·한양대(1.34배) 등 대부분의 대학에서 대학원 등록금이 학부 등록금에 비해 높게 책정돼 있다.

학부생에 비해 등록금 부담이 큰 현실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생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부족하다. 정부는 학부생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했다. '국가장학금1유형 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했다. 대학들의 등록금 상승 억제 및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 노력'을 평가하고 있다.

말 그대로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교내장학금을 전년대비 늘리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2유형의 지급금액에 차이를 두고 있다. 각종 정부지원사업 참가 시에도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결국 학부등록금은 평균적으로 소폭 인하되기도 했다.

한국장학재단 10개 장학금 중
대학원생 수혜대상 1개 뿐

대학원생은 이런 흐름에서 제외돼 있다. 한국장학재단의 신규장학생을 선발하는 10개 장학금 중 대학원생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은 '국가연구장학금'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공계열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선발을 중단해 현재는 인문계열 대학원생만 수혜가 가능하다. 학자금대출의 경우에도 대학원생은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상환이 유예되는 '든든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국가차원의 지원이 적다는 것은 대학원생이 교내장학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현재 우리학교 대학원의 경우 1인당 교내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이 439만 원이다. 이는 등록금의 42.7% 수준으로 연세대 34.7%, 성균관대 28.5%, 한양대 26.4% 등에 비해 높다. 그러나 장학금이 내실까지 갖췄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출액을 기준으로 우리학교 일반



<2013학년도 일반대학원 장학금 수혜현황>

	재학생(A)	교내외 장학금액(B)	재학생1인당 장학금(C=B/A)
경희대	3,289명	17억2천만원	524만원
고려대	4,927명	26억2천만원	532만원
성균관대	4,307명	25억5천만원	601만원
연세대	6,113명	28억9천만원	474만원
중앙대	2,820명	14억원	495만원
한양대	3,825명	14억3천만원	373만원

※ 출처: 대학알리미

대학원의 교내장학 중 46.6%가 '근로장학'이다. 조교활동을 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절반 수준인 것이다. 때문에 대학원생들은 '장학금'이라는 이름보다 '급여'라는 이름이 더 맞다고 자조하기도 한다.

조교업무가 전공과 연관될 가능성도 적다. 우리학교의 조교는 크게 3가지로, 학교 부서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학사조교와 교수 연구를 돋는 RA(Research Assistance)조교, 교원의 수업을 보조하는 TA(Teaching Assistance)조교로 나뉜다. 이 중 학사조교는 전공과 상관없이 단순히 학교부서나 단과대학 내에서 사무직 근로자처럼 근무하게 된다. 또한 TA조교 역시 수업보조라는 역할이지만, 많은 단과대학에서 학과실을 지키며 잔심부름하는 수준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조교제도는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봐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일본 츠쿠바 대학의 경우 대학원생에게 학교 행정업무를 맡기지 않는다. 츠쿠바대학 교육추진과 카와즈라 과장은 "사무부서의 업무를 대학원생에게 맡기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1일에 발표된 조교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500만 원의 조교장학금을 받기 위해 일주일에 32시간 동안 근무해야 한다. 이는 하루 8시간, 주 4일 동안 근무해야 한다. 즉, 평일 중 온전히 연구나 학습에 매진할 수 있는 날은 단 하루밖에 되지 않는다.

조교 장학금 시급 환산 시 6,010원 ...
최저임금보다 130원 높은 수준

학부보다 더 심화된 내용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대학원에서 단 하루 만으로 수업이나 연구에 집중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서울캠퍼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박진홍 회장은 "개인의 창의적인 연구 시간도 부족함은 물론이거니와, 주어진 수업도 다 못 들을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조교의 근무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된 우리학교 조교제도와는 다르게 츠쿠바대학의 조교제도는 조교업무가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루 최대 5시간 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카와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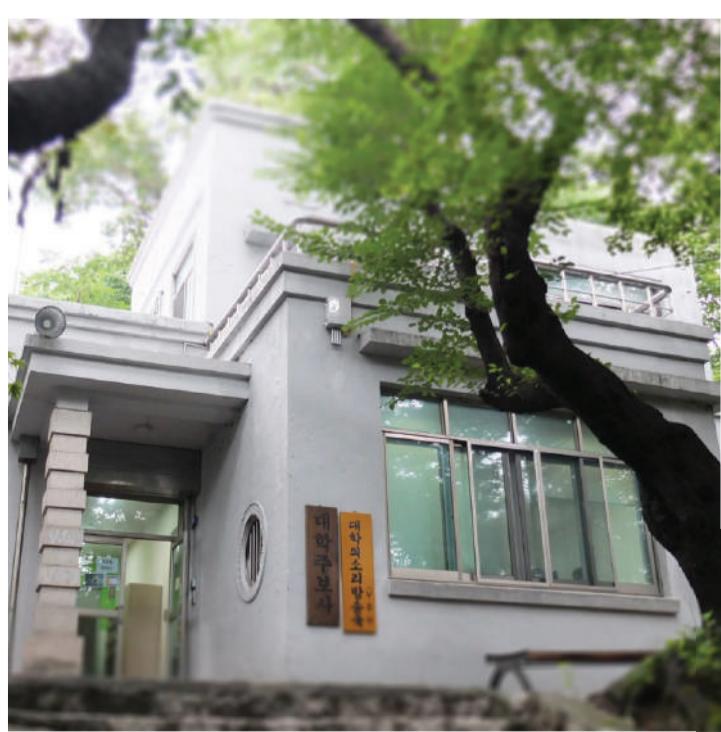
과장은 "학생의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반대학원 김준현 행정실장은 "원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업무 강도나 조교배정에 대해 각 부서와 교무과에 부탁을 드리고 있다"며 "다만 조교선발·관리의 권한이 대학원에 없기 때문에 강제성을 떨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교는 한 학기(6개월, 26주)를 기준으로 총 832시간을 근무해야 한다.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6,010원으로 2015년 최저임금인 5,880원에 비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7.1% 상승하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수준이 유지될 경우 2년 후에는 조교장학금이 최저임금 이하로 내려갈 만큼 낮은 임금이다.

현재 대학원은 조교업무 외에도 다양한 경로로 외부장학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김 실장은 "산학협력단이나 BK21같은 연구 프로젝트 지원금 중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상당하다"며 "이런 금액이 학교회계에서 처리되지 않아 대학공시자료에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부대비 높은 등록금에 비해, 국가장학이라는 완충장치가 없어 학부생에 비해 부담이 크다는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 더해 조교업무가 대학원 생활의 중심이 되는 경우도 대학원생들의 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진 대학원생들이 과연 대학원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대학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대학원생 장학, 조교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 박자 빠른 소식을 원한다면
각종 뉴스의 링크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기자들의 취재단상이 궁금하다면
제보하고 싶은데 어디다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일의 날씨와 같은 소소한 정보까지
얻어가고 싶다면

주저말고 지금,

대학주보와 친구가 되어 주세요
SNS에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khunews@khu.ac.kr

http://media.khu.ac.kr/khunews

KYUNG HEE UNIVERSITY

Global
Collaborative
2015 Summer Program

"국내외 석학 및 국제기구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세계 여러나라 학생들과의 교류의 장을 경험하세요!!"

- 프로그램 기간 2015.07.03~2015.07.30, (4주간)
- 개설강의 "Humanity, Civilization and Global Governance"에 특화된 19개 강의(GC홈페이지 참조)
- 참여대상 국내외 대학(원)생
- 신청기간 2015.03.16~2015.04.30(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장학금 경희대학생의 경우 미래문명원 내오르네상스장학 신청 가능(총 10명)
- 문의 미래문명원 Tel: 02-961-0995 Email: summer@khu.ac.kr 홈페이지: http://gc.khu.ac.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khugc



사람·사물 간 연결로 창조적 활용가능

특별기고 - 사물인터넷(IoT)



송주빈
전자전파공학
교수

요즘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이란 말이 자주 등장한다. 일부에서는 더 넓은 개념으로 만물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 IoE)이라고도 하지만 현재까지 IoT란 용어가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세계적인 기업들은 앞 다투어 다양한 분야에 걸쳐 누가 먼저 사물인터넷 핵심 기술을 독점할 것인가를 두고 칭조적인 아이디어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경쟁이 뜨겁다.

지금까지 인터넷에 접속하여 정보를 주고받는 단말기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던 컴퓨터였다. 그러나 사물인터넷에서는 이 단말기가 모든 사물로 확대된다. 그래서 사물인터넷 시대를 초연결(Hyper-connectivity) 시대라고도 한다. 특히 스마트폰이 운영체계(Operating System)를 갖추어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통적인 기계 산업으로 여겨졌던 자동차에서 대표적인 전자 부품은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Micro Controller Unit, MCU)에 불과했으나 향후 운영체계를 탑재한 차량용 컴퓨터로 발전이 예상된다.

사물인터넷에선 모든 기기가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된다

사물인터넷 기술은 사물에서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센서 기술, 다양한 사물을 연결해주는 유무선 통신, 사물인터넷 데이터링크, 네트워킹 기술 그리고 유용한 응용 서비스 기술 등이 주요 기술이 되겠다. 특히 방대한 개수의 사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여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빅데이터 처리 기술과 창조적인 서비스 기술은 사물인



터넷의 확산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보통 사물 센서들은 저가격 경량화를 위하여 간단한 보안 기술이 적용되는데, 이보다 심화된 획기적인 보안 기술 등이 해결되어야 할 또 다른 과제이다. 또한 사물인터넷 기기에 탑재될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이 사물인터넷의 표준화는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사물들이 어떻게 인터넷에 접속될 수 있는가? 현재까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다양한 접속 네트워크(Access Network)가 존재한다. 유선이나 무선으로 접속할 수 있는데 유선으로 사물을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주로 이더넷(Ethernet) 카드를 이용하여 랜(Local Area Network, LAN)에 연결할 수 있다. 넓은 지역을 이동하면서 무선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접속하면 된다. 30~50 미터 거리에 있는 기기들을 초당 기가 비트의 속도로 무선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무선랜(WLAN)을 사용한다.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만든 센서네트워크를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하기도 한다. 근거리에서 무선으로 기기를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접속 방법을 통하여 특정한 사물인터넷 응용 서비스를 위하여 이와 관련된 데이터만 모으기 위해서는 공통의 형식을 갖는 데이터링크가 필요한데 이를 사물인터넷 데이터링크라고 한다.

이렇게 다양한 접속 방법으로 다양한 사물들이 인터넷에 접속되고 사물인터넷 데이터링크를 통하여 정

PAN) 기술로 표준화하여 사용되고 있는 블루투스(Bluetooth)와 직비(ZigBee)를 사용한다. 더 나아가 최근 기기 간에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원활한 송수신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D2D(Device-to-Device)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다. D2D는 기기 간에 초당 수백 메가 비트의 정보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어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전송에 적합하다. IEEE에서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는 WiFi Direct가 대표적인 D2D 표준이다.

사물인터넷 시대에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교통카드 등에 사용하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뿐만 아니라 더 멀리 있는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산업용 능동형 RFID 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다양한 정보를 무선으로 읽을 수도 있다. 따라서 기기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는데 불편함이 없어졌다. 언제 어디서나 사물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접속 방법을 통하여 특정한 사물인터넷 응용 서비스를 위하여 이와 관련된 데이터만 모으기 위해서는 공통의 형식을 갖는 데이터링크가 필요한데 이를 사물인터넷 데이터링크라고 한다.

이렇게 다양한 접속 방법으로 다양한 사물들이 인터넷에 접속되고 사물인터넷 데이터링크를 통하여 정

있게 재구성하고 있다. 프랑스 원서로 600여 쪽에 달하는 제2권의 이 엄청난 작업은 수많은 사실, 사례, 참고 자료에 의거하고 있는데, 여자들에게 주어진 세계를 여자들의 관점에서 그려내고 있어 총간 6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여성 독자들의 보편적인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제2의 성〉은 보부아르에게 세계적 명성을 가져다주었지만 종종 그의 다른 작품과 활동을 가리는 결과를 낳곤 했다.

보부아르는 집필, 참여 지식인으로서의 활동, 여성해방 투쟁 등을 통하여 여러 분야에 걸쳐서 업적을 남겼지만, 그중에서도 왕성한 저작 활동과 작품으로 현대 프랑스의 지성계와 문학 세계에 큰 족적을 남긴 탁월한 실존주의 작가라는 점을 최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그녀의 삶이나 작품 모두 실존주의 철학과 문학이 그 토대를 이루고 있고, 〈제2의 성〉 역시 여성의 상황을 실존주의 철학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 이기 때문이다.

참여마당

유재욱
(한국어학 2012)



통섭 앞에 선 우리

SNL코리아는 최근 <고교 전쟁 문과 VS. 이과> 에피소드에서 우리 10대 시절을 정확하게 풍자했다. 방송을 통해 비춰진 문과는 모든 말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었고, 이과는 간단한 숫자마저 수식을 통해 표현하고 있었다. 사실, 문과와 이과는 '답을 쓰고 살았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다. 그만큼 우리는 인문학과 이공학을 별개의 것으로만 보고 있었고, 또 그렇게 가르침 받아왔다.

학점 행기라, 토의 준비하라, 입사시험 준비하라, 심지어 알바까지, 이것이 너무나도 슬픈 보통의 우리 모습이다. 10대에 원하고 고민했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무색해진 마당에, 사회는 통섭이라는 개념까지 요구하고 있다. 공학도는 인문학을 알아야 하고, 인문학도는 공학을 알아야 하는 그런 것이다. 사회는 우리에게 그동안 쉬일 수 없을 것이라 인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융합하라는 과제를, 갑작스레 던져주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는 '창조형 융합 인재'라는 변형된 통섭의 개념을 수도 없이 들었고,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갖추기 위해 이전과는 다른 노력을 요구받아왔다. 어떤 회사고 입사시험에 문학문제, 역사문제가 나오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당연해졌다. 흑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KBS 한국어능력시험에 기준의 토의, 토플 점수와 같은 '필수 스펙'이 되었다고 말한다. 한편으로는 '인문학의 위기'라고 말하지만 인문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이공학 전공자까지도 인문학을 알아야 하는 시대가 도달했다는 것에는 아무도 이견을 들 수 없을 것이다.

10대에 원하고 고민했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무색해진 마당에, 사회는 통섭이라는 개념까지 요구하고 있다.

요즘에는 반대의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우리학교는 지난 2014년부터 삼성과 손을 잡고 SCSC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문학도에게도 컴퓨터공학을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대학교는 올해부터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컴퓨터공학 필수교양을 신설했다. 심지어 정부는 초등학생이 코딩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종합하자면, 인문학이 중요하긴 하나, 실무적으로는 공학적 역량이 중요하니 비전공자에게 코딩 능력을 길러내겠다는 말이다.

〈통섭의 식탁〉의 저자인 최재천 교수는 그의 책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종종 '모르는 게 악이다'라고 자기기만을 하며 산다. 그러나 나는 결코 모르는 게 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늘 '알면 사랑한다'라는 말을 이마에 써 붙이고 다닌다. 서로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더욱 사랑하게 된다고 확신한다."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아서 우리는 때때로 인문학 속성과정에 등록하기도 하고, 목적 없는 코딩공부를 시작하기도 한다. 이러한 학문에 대한 왜곡된 모습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입학 후 졸업까지 기껏해야 4년 정도의 시간이다. 그 짧은 시간동안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필자 역시 같은 입장이라 이에 대해 어떤 명쾌한 답을 내릴 수는 없다. 단지,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할 따름이다.



〈제2의 성〉은 여성들의 의식을 각성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고, 1960년대 페미니즘 운동 제2의 물결의 기폭제가 된다

나로 앞으로도 그 영향력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제2의 성〉 제1권 '사실과 신화'에서 보부아르는 남성이 만들어 온 법과 제도 그리고 신화를 통하여 여성 이 어떻게 〈제2의 성〉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는지 역사와 신화연구를 통해 파헤치고 있고, 제2권 '체험'에서는 여자 인생의 초년기부터 말년기 까지의 생리적, 심리적 과정을 끈기

Lion Annual Fund

월 만원으로 학교사랑, 후배사랑 실천

천명이 사랑을 전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명이 응원을 하면
최적의 학습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십만명이 힘을 합치면
단과대학과 기숙사, 도서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실천이 경희를 발전시키는 '저력'입니다

인물

▶1면에서 이어짐



국제캠퍼스의 역사와 함께하는 동안 변하는 학생들의 감성을 키아 상호도 바뀌었고 도중에 잠깐씩 문을 닫았던 세월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아빠짱 분식'은 여전히 학생들이 즐겨 찾는 가게 중 하나다.

"여기(마을)는 사실 학교(국제캠퍼스) 생기면서 같이 생겨난 동네야. 개인적으로 여기 영통 쪽이랑 전혀 연이 없었지. 그런데 우리 아들이 경희대 태권도학과에 다녔었는데, 1980년쯤 수원캠퍼스(국제캠퍼스)가 생기면서 학과가 이전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따라 내려와서 여기 자리를 잡은 거야."

말을 멈춘 이 할머니는 잠시 바깥을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다.

"처음에는 지금 가게 맞은편에서 라면집 이랑 슈퍼를 하면서 시작했어. 그때는 전부 학생운동 하느라 난리도 아니던 시절이지. 그 때는 배고픈 학생들이 '엄마, 엄마 밥 좀 줘요'하고 찾아오고 했더니."

이 할머니의 말처럼, 19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의 마을은 형제조차 불분명 했다. 당시에는 현재의 골목 자리에 들어선 '건물'이라곤 이 할머니의 가게와 학생들의 작은 방 몇 개가 전부였다. 변변한 건물조차 없던 그곳에서 당시 학생들은 할머니의 가게에 옹기종기 모여 난로에 몸을 녹이고 함께 밥을 먹었다고 한다. 술 먹을 장소가 없던 학생들이 모여와 술과 라면을 먹으며 모임을 하던 곳, 그곳이 '아빠짱 분식'의 시작점이자 '마을'의 출발점이었던 셈이다.

1980년대 중순 이후부터 마을에는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비포장 도로를 중심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한 작은 술집들이 촘촘히 들어서기 시작했다. 술집들을 험한 학생들 역시 점차 마을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비로소, 마들이 국제캠퍼스 대학가의 '중심'으로 변모하던 시기였다.

1990년대 초에 이르러 마을은 현재의 모습을 거의 갖춰가기 시작한다. 1994년, 현재의 중국집 '짜장마을'이 위치한 건물과 원래 실내 야구장이었던 지금의 철판 볶음

밥집 '동지' 자리를 중심으로 신식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마을은 5~6년 사이에 지금의 모습을 갖추어 나갔다. 학생들에게 익숙한 마을의 상호들 또한 이때쯤 등장한 곳들이 많다.

마을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익숙한 상호 중 하나인 '엄마닭'도 이맘 때 자리를 잡은 가게들 중 하나다. '엄마닭'을 운영하는 오동희(58)씨는 '지난 세월동안 마을은 항상 학생들과 함께 했다'고 말한다.

"이제는 학생들이 전부 자식들 같지. 우리 가게 이름이 또 '엄마'잖아?"

오씨는 학생들의 선배도, 그 선배의 선배들도 여기서 젊음을 보냈다고 말하며,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재밌게 놀고, 좋은 데 취직도 하고 해서 다시 찾아오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뿐듯하다"고 흐뭇한 '엄마 미소'를 지었다. 지금도 학교를 떠나 직장인이 된 학생들이 자주 인사하러 찾아온다고 한다. 이제는 어느덧 어엿한 한 가장이 된 옛 단골들을 보면 훤히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한다고.

초창기의 모습과 형성기의 모습이 다르고, 중흥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또 다른 마을은 이렇듯 시간대에 따라 각 세대에게 서로 다른 다양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다. 지금 현재 마을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가의 수는 약 40여개다. 현재의 모습이 갖춰진 이후로 마을은 근래 들어 또 다시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거치고 있다. 주로 술집 위주였던 상가의 자리들이 카페와 간단한 도시락집들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영통역 개통은 마을 상권에 변화를 가져왔다. 영통역과 우리학교 정문을 잇는 동선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국제캠퍼스 대학가 '중심지' 역시 기존 마을에서 정문 건너편 상권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

1 초저녁 마을의 풍경.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한다.

2 국제캠퍼스 정문 맞은편 상가들의 일부.

점차 새로운 상점들이 들어서고 있다.

3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분식집 '아빠짱 분식'

이치옹(75) 할머니.

술집 '토네이도'를 12년째 운영하고 있는 진현숙(60)씨는 술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시대적 분위기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다.

"확실히 (예전에 비해) 변하기 많이 변했어요. 저희 딸이 10년째 일을 도와주려 오고 있는데, 하루는 오래간만에 도와주려 오더니만 '엄마, 여기 사람 많이 줄었네?' 라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예전에는 언제나 사람들로 빨디딜 틈이 없었다면, 요즘은 개강 때임을 감안해도 사람이 확실히 줄었어요."

시대적인 분위기는 차치하고서라도 다양한 교통편의 발달, 특히 지난 2012년 12월 지하철 분당선 영통역의 개통은 마을 상권의 확연한 변화의 흐름을 가져왔다. 영통역과 우리학교 정문을 잇는 동선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국제캠퍼스 대학가의 '중심지' 역시 기존의 마을에서 정문 건너편 상권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지난 30여년간 유지되었던 '국제캠퍼스=마을'이라는 공식이, 불과 3~4년 새 확 바뀌게 된 것이다. 아직까지는 그 비율이 적긴 하나, 술집 위주였던 절대다수의 상가들이 카페와 도시락집으로 재편되는 현재의 상황 역시 이런 흐름에 기인한다. 정문 건너편의 영통 상권에 다양하고 새로운 주점과 상점들이 들어서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시작한 결과, 마을은 이제 지리적 인접성을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업종들- 공강 시간에 간단히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카페나 간단하게 끼니를 때울 수 있는 도시락집 등-을 주요 경쟁력 삼아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목요일만 되면 인산인해를 이뤘던 마을, 오랜 세대를 관통하며 국제캠퍼스의 중심으로 인식되어온 그 마을은 우리 후배들에게는 어떤 모습과 어떤 기억으로 자리하게 될까. 과거의 시간을 오로지 간직하고 있는 마들이 이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또 한 번 변모하여 학생들의 삶 곁에 남게될지 사뭇 궁금하다.

★ 학군사관(ROTC) 56·57기 모집안내

2015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 지원자격

- 연령 : 임관일 기준(만 20~27세 이하인 남·여) ※제대군인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을 합산함
- 학군 제 56기(남·여 모두 가능) : 4년제 대학 2학년재학생(5년제 학과는 3학년 재학생)
- 학군 제 57기(남자만 해당) :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5학년 학과는 2학년 재학생)

◆ 지원서 접수 및 모집일정

- 기간 : 2015년 3월 1일 ~ 3월 31일
- 방 법 : 인터넷 www.armyofficer.mil.kr [지원서 접수]란 이용
- 일정 : 1차 필기고사 : 4월 4일(토) / 발표 : 4월 24일(금)
2차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체검사 : 4월 27일(월) ~ 5월 22일(금) / 발표 : 6월 12일(금)
- 신원조회 : 6월 15일(월) ~ 8월 14일(금)
- 최종합격 : 8월 20일(목)
- 문의처 : 학군교 (043)830-6039